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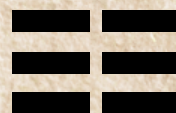
대한민국 1만 세



상하이 교교, 화동 교교



상해한국학교



상하이

SHANGHAI



차례

김문공사	4
사해다관	6
인성학교	8
올림픽 극장	11
루신공원 매헌 윤봉길 기념관	13
일본 해군 육전대 사령부	16
육삼정	18
상하이 푸셔우위안	21
중국 '위안부' 역사 박물관	24
진자강 성당	26
쉬자후이 성당	30

김문공사 金文公司

총대 없는 상인 독립군 김시문의 기억

주소: 上海市 黄浦区 淮海中路 333号

가는 방법: 지하철 1호선 황피난루[黄陂南路]역
2번 출구 바로 앞

좌표: 121.480638, 31.228448

신천지(新天地) 화이하이중루(淮海中路) 333호에는 김시문의 김문공사(金文公司)가 있었다. 1922년 설립된 김문공사는 중국 정부의 ‘공사합영(公私合營)’이 실시된 1956년까지, 약 34년간 운영되었다. 현재 신티엔디 광장(新天地廣場) 인근의 ‘루이안 광장(瑞安廣場)’이라는 표지석이 바로 김문공사가 있었던 장소이다.

1916년 상하이로 이주한 김시문(金時文)은 3년 뒤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기관지 ‘독립신문’의 사무원 겸 식자공(植字工)으로 일했다. 이후 1922년 자신의 이름을 딴 ‘김문공사(金文公司)’라는 잡화상을 경영하기 시작했다. 당시 상하이 교민사회에서는 그를 외국에서 한국 인삼과 사과를 널리 선전하고 판매하는 ‘외화 획득의 용사’로 소개했다. 당시 한국 인삼에 관심이 높았던 중국에서는 집마다 방문하며 인삼을 팔러 다닌 한인들이 많았다. 김시문 역시 초기에는 프랑스 조계지에서 인삼 행상을 했다.

김시문은 상인이면서도 독립운동 단체를 묵묵히 도왔던 인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려움에 부닥칠 때마다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특히 재정난으로 폐간될 위기에 처한 임시정부의 기관지 ‘독립신문’을 인수해 잠시 경영하기도 했다. 1926년 그는 침체에 빠진 임시정부를 살리기 위해 임시정부경제후원회 설립에 참여했으며, 상하이 일본 총영사관 폭파를 시도하다 실패하여 항저우로 피신한 의열단 단원 나창헌과 병인의용대 대원 고준택, 김석룡 등을 도왔다. 이 모든 과정에서 김문공사는 독립운동가들의 회합 장소로 사용될 만큼 매우 중요한 장소였다.

사해다관 四海茶館

김구 선생님과 윤봉길 의사가 만나 의거를 협의하다.

주소: 上海市 黄浦区 淮海中路 333号

가는 방법: 지하철 1호선 황피난루[黄陂南路]역
2번 출구 바로 앞

좌표: 121.480713, 31.224484

사해다관은 홍콩 공원 의거 9일 전, 김구 선생과 윤봉길 의사가 만나 의거를 처음 계획했던 장소이다. 현재 사해다관 자리에는 화푸 티엔디(华府天地公寓)라는 고급 주상복합건물이 자리 잡았다.

1930년 3월, 윤봉길 의사는 “장부가 뜻을 품고 집을 나서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마지막 유서를 남긴 채 중국으로의 망명길에

올랐다. 나라를 되찾겠다는 장부의 장엄한 뜻이 청년 윤봉길을 사해다관으로 안내했을 것이다.

이곳에 오면 1932년 4월이 떠오른다. 당시 상하이 홍커우 공원은 일왕의 생일 축하 및 상하이사변 전승기념 준비가 한창이었다. 4월 29일, 윤봉길은 단상을 향해 수통형 폭탄을 날려 침략의 원흉들을 죽이거나 불구로 만들었다. 윤봉길의 홍커우 공원 의거에 대해 중국의 지도자 장제스(蔣介石)는 “중국의 백만 대군과 4억 국민이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라고 격찬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 지지하기 시작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침체에 빠진 임시정부에 큰 전환점과 함께 국내외 한인들의 독립 의지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인성학교 仁成學校

독립의 염원을 교육에 담다

주소: 上海市 黄浦区 合肥路 464号

가는 방법: 지하철 10호선 이다후이즈·신티엔디
[一大会址·新天地]역 5번 출구 바로 앞

좌표: 121.480843, 31.221477

일제 강점기 이후 상하이로 이주하는 한국인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교육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인성학교는 1916년 9
월 1일 설립된 상하이한인기독교소학교를 계승하여 1917년 2월
한인 거류민의 자제들을 위한 초등 교육기관이 됐다.

이후 1919년 4월, 인성학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외곽 단체인 상하이 거류민단(대한교민단)에 소속되어 의무교육을 목표로 삼는 공립학교가 되었다.

인성학교의 교육 목표나 내용은 임시정부의 교육정책이 기반이 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에게 지·덕·체의 함양을 강조하고, 한국어와 한국 역사를 중심으로 가르쳐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했다. 그 밖에도 한문·외국어 등을 교육하였고 교과서는 학교에서 직접 등사로 제본한 교본을 사용했다. 수업은 한국어로 하고 일본어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학생 수는 1916년도 개교 당시에는 4명이었지만, 점차 학급수가 늘어나고 유치원이 증설되면서 1920년대 후반에는 50~70명 정도의 규모를 자랑했다고 한다.

1932년 4월 윤봉길 의거 이후 일제의 탄압을 피하고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를 떠난 상황에서 인성학교는 일본 총영사관의 압력을 받았다. 1935년, 선우혁 교장이 일제의 일본어 교육 실시 요구에 불복하여 무기한 휴학하면서 폐교 상태에 이르렀고, 광복 후 학생 수가 감소하여 1981년 폐교되었다.

1992년, 한·중 수교로 인해 양국 간의 관계가 강화되면서 한국 교

민 역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는 교민 자녀들에 대한 한국 교육과정 제공의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1999년 7월 한국 교육부의 학교 설립 인가를 받아 9월에 개교한 상해한국학교는 80여 년 전에 설립된 인성학교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 상해한국학교는 2007년 제1회 학교 축제 행사를 준비하면서 행사 명칭을 ‘인성제’로 결정했는데, ‘인성제’의 명칭 역시 인성학교에서 유래되었다.

현재 인성학교 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에서 약 200m 떨어진 SOHO 푸싱 광장(復興廣場) 건물이 들어서 있다.



올림픽 극장 夏令配克剧场

모두 함께 3.1 운동의 감격을 나눈 극장

주소: 上海市 黄浦区 合肥路 464号

가는 방법: 지하철 10호선 이다후이즈·신티엔디
[一大会址·新天地]역 5번 출구 바로 앞

좌표: 121.480732, 31.2214

1920년 3월 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 올림픽 극장에서 제 1주년 3·1절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이 기념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주관한 가장 큰 3·1절 기념식으로 당시 홍콩 지역을 거주 중인 한인들까지 참여할 정도였다. 참가자들은 행사 이후 올림픽 극장 앞에서부터 상하이 일본 총영사관 앞까지 차량 행진과 시위를 펼쳐

많은 외국인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 주었다. 제2주년 기념식 역시 올림픽 극장에서 거행되었는데, 이때 시를 지어 낭독하는 행사가 진행되었다고 알려진다.

올림픽 극장은 그 뒤 대화극장 (신화극장)으로 운영되었다가 현재 후이인[匯銀] 빌딩으로 바뀌었다.

삼일절 노래

-1920년대 삼일절 행사 때 인성학교 학생들이 부른 노래-

1.

참 기쁘구나 삼월 하루
독립의 빛이 비쳤구나
금수강산이 새로웠고
이천만 국민이 기뻐한다
만세 만세 만세 만세
우리민국 우리동포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대한민국 독립 만만세라

2.

십년간 받은 원수 치욕
오늘에 씻어 버렸구나
금수강산이 새로웠으니
천만대 가도록 잊지마라
만세 만세 만세 만세
우리민국 우리동포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대한민국 독립 만만세라

3.

잊지 말아라 삼월 하루
반도에 사는 소년 소녀들아
자자손손이 전해가며
억만대 가도록 잊지마라
만세 만세 만세 만세
우리민국 우리동포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대한민국 독립 만만세라

루쉰공원 매현 윤봉길 기념관

한민족이 존경하는 윤봉길 의사

주소: 上海市 虹口区 四川北路 2288号

가는 방법: 지하철 8호선 홍커우축구장
[虹口足球场]역에서 도보 5분

좌표: 121.489792,31.278256

매현 윤봉길 기념관은 루쉰 공원[魯迅公園] 안으로 5분 정도 걸어 들어가면 있다. 과거 '홍커우 공원(虹口公園)'으로 불렸던 공원의 명칭은 루쉰을 기념하기 위해 그의 묘와 기념관이 이전해 오면서 '루쉰 공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여기서 루쉰은 중국 현대사에 중요한 소설가이자 사상가로 '광인일

기', '아Q정전'이라는 유명한 책을 남겨 중국인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인물이다.

1932년 4월 29일, 일본의 조계지이자 일본 해군 육전대 사령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홍콩 공원에는 일왕 생일 축하연과 전승 기념식이 열렸다. 윤봉길 의사는 일본의 만행을 만천하에 알리고 일제의 주요 인사들을 처단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폭탄을 투척하였다. 홍콩 공원 의거에 당시 중국 장제스(蔣介石) 총통은 크게 감명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봉길 의사의 호(號)인 매헌[梅軒]은 차가운 눈보라를 뚫고 꽃을 피워 진한 향기를 내뿜는 매화라는 뜻으로 조선의 독립 의지를 세계에 퍼뜨린 윤봉길 의사의 이미지와 큰 연관이 있다. 의거를 기념하기 위해 루쉰 공원에는 매정[梅亭]이라는 정자가 건립되었고, 1998년에는 윤봉길 의사 의거 기념비가 건립되었다. 2003년 12월 4일에 윤봉길 의사의 생애와 독립운동, 윤봉길 의사에 대한 각종 기념 활동 등의 자료가 전시되기 시작했다. 이후 윤봉길 의사 기념관은 의거 83주년 및 광복 70주년을 맞은 2015년 4월 29일에 재개관하였다. 처음 '매정[梅亭]'으로 불렸던 이 기념관은 국가보훈처와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지속적인 요구로 윤봉길 의사의 호를 딴 호를 딴 ‘매헌’으로 바뀌었다.

현재 기념관은 약 20여 평의 정자 형태 2층 목조건축물로, 기념관 앞 광장 좌측 옥외 전시관에는 윤봉길의 사의 전언, 출생 및 국내 활동, 망명, 의거 등의 내용이 전시되어 있다. 1층에는 추모 흉상, 당시 사용되었던 도시락 폭탄과 시계, 의거 성과 및 영향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2층에는 윤봉길 의사의 삶에 대한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

한국인의 독립운동 흔적이 중국 상하이의 공원에 이렇게 우뚝 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만큼 중국 정부도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일본 해군 육전대 사령부

윤봉길 의사가 10시간 심문을 받은 장소

주소: 上海市 虹口区 四川北路 2180号

가는 방법: 지하철 3/8호선 홍커우축구장
[虹口足球场]역에서 도보 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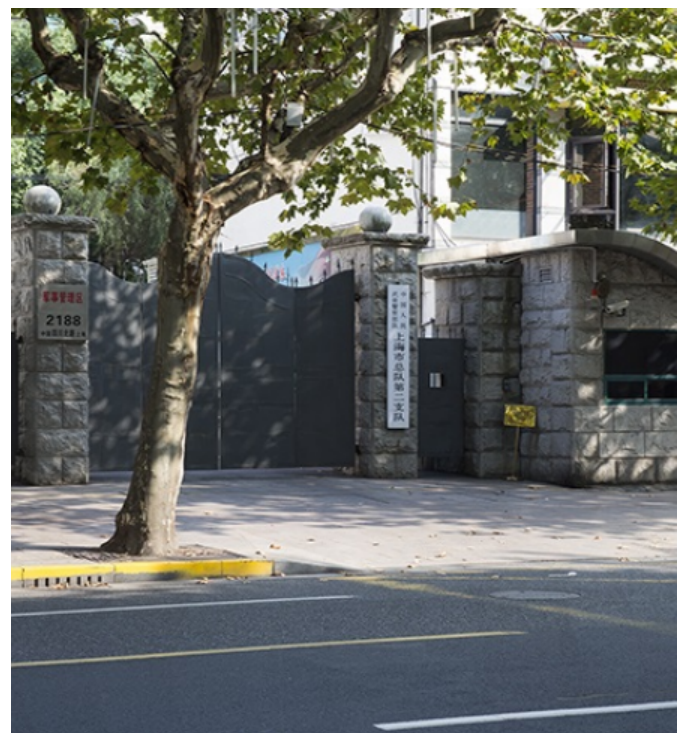
좌표: 121.48902,31.27281

1924년 건축된 이 건물은 1932년부터 일본군 해군에 의해 사용되었다. 특히 일본 해군 육전대 사령부는 홍커우 공원 의거 직후 일본군에 의해 검거된 윤봉길 의사가 심문을 받은 장소로 알려졌다.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는 일본인으로 위장해 홍커우 공원에 들어갔다. 당시 공원에는 상하이 거주 일본인 1만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 일반인 외에도 상하이 파견 일본군 제9사단과 육전대 병력 1만 2천 명, 그 외에 각국의 사절과 각계 초청자를 합하여 3만여 명의 군중으로 홍커우 공원은 북적였다. 2부 축하식의 기미가요 마지막 소절을 부를 때쯤, 윤봉길 의사는 앞으로 나와 단상을 향해 수통형 폭탄을 투척하였다. 폭탄은 정확히 단상 위 중앙에 떨어져 우리나라 침략의 원흉인 가와바타와 시게미쓰 등 여러 명의 군관을 불구로 만들었다. 그 뒤 자결하려 했던 도시락형 폭탄을 주우려던 찰나, 윤봉길 의사는 체포되어 기절할 정도로 못매를 맞았다. 이후 이곳 일본 해군 육전대 사령부에서 10시간 동안 혹독한 심문을 받았다. 윤봉길은 일본 헌병대의 군법회의에서 사형 인도를 받았고, 일본으로 이송된 후 사형이 집행되었다.

일본 해군 육전대 사령부 건물은 1945년 8월 일본이 패망함에 따라 중국 국민당이 운영하였으며, 1949년 5월 상해 해방 이후에는 중국 인민 해방군이 관할하고 있다.



육삼정 六三亭

내 무덤에 꽃 한송이 꽂아주기 바란다

주소: 上海市 虹口区 塘沽路 346号

가는 방법: 지하철 10호선 쓰촨베이루[四川北路]
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2분

좌표: 121.495024, 31.253957

육삼정 의거는 1933년 3월 17일 홍콩 구에 위치한 음식점 '육삼정'에서 주중 일본공사 아리요시 아키라와 중국 국민당 친일파가 비밀 회동하는 현장에 폭탄을 투척하려 했던 거사다. 하지만 암살 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새어 나오면서 의거를 주도했던 백정기, 원심창, 이강훈 등은 육삼정에서 약 200m 떨어진 음식점 송강춘에서

일본군 헌병대에 체포되고 말았다.

비록 의거는 실패했지만, 그 영향은 컸다. 중국 신문사들이 의거 계획을 대서특필하면서 침체기에 빠진 국내외 항일운동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육삼정 의거를 계기로 일제의 탄압에 주춤했던 우리 민족의 항일 투쟁 의지가 거세졌고, 중국인들 역시 일본 제국주의의 음모를 명확하게 알게 되면서 한국인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1933년 11월 11일 동아일보에 육삼정 의거가 자세히 소개되어 일제와 중국 국민당 친일파의 비밀스러운 만남의 의도가 세상에 알릴 수 있었다. 이 의거는 상하이 3대 의거로, 의거를 주도한 백정기는 윤봉길, 이봉창과 함께 '3의사'로 꼽힌다.

육삼정 의거지로 알려진 홍커우구 탕구루 346호 일대는 와이탄과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이전까지 육삼정의 위치는 자푸루 190호로 알려져 있었으나, 자푸루는 또 다른 일본군 시설로 확인되었고, 탕구루



346호가 정확한 위치로 확인되었다. 이전 건물이 철거된 이 자리에는 작은 중국식 식당이 자리 잡고 있다.



푸셔우위엔 福寿园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없는 미래

주소: 上海市 青浦区 外青松公路 7270弄
600号

가는 방법: 지하철 9호선 서산[佘山]역에서 택시로
10분 이동

좌표: 121.137908,31.115533

상하이 국립묘지격인 푸셔우위엔에는 한국인 출신 영화배우 김염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다. 김염의 본명은 김덕린으로 191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한국인 최초로 양의사 자격을 획득한 아버지 김필순이 105인 사건과 연루되어 만주로 떠나면서 김염은 중국 국적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김필순이 일제에 의해 독살당하자 김염은 고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영화배우의 꿈을 꾸게 되었다. 17세에 상하이로 건너온 김염은 매우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다 '풍류검객(風流劍客)'으로 데뷔를 했다. 1930년 완령옥(阮玲玉)과 함께 찍은 '야반화초(野草閒花)'가 성공을 거두면서 스타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 뒤 1934년에 '전성'이라는 영화 잡지의 설문조사에서 김염은 '가장 인기 있는 배우'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영화 황제'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

같은 해 김염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자산이 출연한 항일 투쟁 영화 '대로(大路)'가 세계 100대 영화로 꼽힌 것이었다. 당시 상하이에서는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계기로 항일 의지가 높아졌고, 이는 영화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염은 '대로' 이후 더는 로맨스 영화를 찍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영화를 통한 항일 운동에 나서게 된다.



영화를 통한 항일 운동 외에도 김염은 1935년 난징으로 피신한 김구를 비밀리에 만나 독립자금을 지원하는 등 직접적으로 독립운동을 도왔다. 일본의 패망 이후에도 중국에 남은 김염은 마오쩌둥(毛澤東)으로부터 '국가 1급 배우'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영화를 인민의 적으로 간주하는 홍위병들에 의해 문화대혁명 동안 고문을 당하고 집단농장에서 중노동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건강이 악화된 김염은 결국 1983년 두 번째 부인 친이(秦怡) 여사와 동료 영화인들이 보는 가운데 생을 마감했다.

그의 유해는 상하이의 푸셔우위안에 안장되었는데, 국립묘지 격인 푸셔우위안에 묻힌 영화인은

김염이 유일하다. 또한 1995년에 중국에서는 중국 영화 탄생 90주년을 기념하며 국가 차원에서 세계적인 중국 배우들을 소개하는 책 '중화영성(中华影城)'을 발간하였는데, 다른 쟁쟁한 영화인들을 제치고 첫 페이지를 장식한 인물은 바로 김염이었다.



중국 '위안부' 역사박물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없는 미래

주소: 上海市 徐汇区 桂林路 100号

가는 방법: 지하철 15호선 구이린공원[桂林公园]
역에서 도보 17분

좌표: 121.427608, 31.168762

일제강점기 일본의 만행을 알리고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상하이 사범대학교에는 한국 소녀상과 중국 소녀상, 그리고 빈자리
가 설치되어 있다. 상하이 사범대학의 일본군 '위안부' 연구소에서는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바탕
으로 2016년 10월 22일 중국 '위안부' 역사박물관을 개관했다.

이곳에는 중국 내에 있던 위안소에 관한 많은 자료가 비치되어 있는데, 이중 한국 위안부들에 대한 내용도 많이 담겨있다. 특히 이곳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생전에 쓰셨던 물품들, 과거 일본 군들의 자료나 사진과 같은 중요한 역사 기록물이 함께 전시되어 있다. 박물관의 관람 순서는 위안부 제도의 등장, 위안부 제도의 실시, 위안부 제도의 확대, 종전과 심판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료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되어있다.



진자상 성당

金家港天主堂

김대건, 한국 최초의 신부가 되다

주소: 上海市 浦东新区 紫槐路 80号

가는 방법: 지하철 9호선 양까오중루[杨高中路]
역에서 택시로 4분 이동

좌표: 121.567549, 31.233958

진자상[金家巷] 성당은 1628년 명나라 숙종 때 건립된 중국 화동 지역의 최초 성당이자 1845년 8월 17일 김대건이 조선 교구장 페레올 고 요한 주교(Ferreol, Jean Joseph, 1808~1853)로부터 한국인 처음으로 사제 서품을 받은 곳이다. 성당이 있는 진자상은 상하이 최초의 천주교인인 서광계[徐光啟]가 자신의 집안일을 돌보던 김

씨 가족에게 땅과 집을 마련해주어, 김 씨 가족이 모여 살게 되면서 형성된 집성촌이다. 이후 서광계의 영향을 받아 천주교 신자가 된 김 씨 집안사람들은 마침내 진자상 성당을 세우게 된다.

당시 성당 건물은 상하이 푸동[浦東] 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지난 2001년 3월 30일 마지막 미사를 끝으로 철거됐고, 지금 있는 성당은 원래 있던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2004년 6월 25일 복원된 건물이다. 2005년 4월 20일 김대건 신부의 유골이 성당 내부에 모셔진 뒤로 한국인의 성지순례가 이어지고 있다.

〈김대건〉 - 상하이에서 서품을 받은 한국인 최초의 신부

김대건은 1821년 독실한 천주교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김제준은 1839년 순교하셨다. 1835년 최양업 등과 함께 마카오에서 신학생으로 가게 되어 중등과정과 철학과정을 수료하였다. 1845년 1월 잠시 귀국했다가 상하이로 건너와 완당신학교에서 페레올 주교의 집전으로 신부 서품을 받았다.



김대건은 1845년 8월 서울로 돌아와 활발히 전교활동을 펼치다가 1846년 5월 순위도에서 체포되어 새남터에서 순교하였다. 1925년 로마교황 비오 11세에 의해 복자로 선포되었고, 1984년 성인으로 선포되었다.

〈주문모〉 - 한국을 찾아온 최초의 천주교 선교사

한국에 들어온 최초의 천주교 선교사는 화동지역 출신 중국인 주문모 신부다. 주문모 신부는 장쑤성 쿤산현[崑山] 출생으로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일찍 천주교에 입교하여 베이징신학교 제1회 졸업생이 되었다. 1794년(정조 18년) 베이징 주교 구베아의 명을 받고 12월 23일 조선인 신자 유황, 윤유일 등의 안내로 조선에 몰래 입국한 후 1795년 6월 서울에 도착했다. 조정의 천주교 탄압이 매우 심한 상황에서 그는 서울에서 숨어 지내며 꾸준히 전교활동을 전개했으나, 그해 6월 배교자 한영익의 밀고로 체포령이 내려져 강완숙의 집에 피신했다.

이때 그를 도와 전교하던 최인길, 지황, 윤유일은 체포되어 죽임을 당하였다. 주문모 신부는 그 후 6년 동안 강완숙의 집에 은신하면서 정약종, 황사영 등 특출한 교유를 만났고, 왕실의 은언군(사도세자의 셋째 아들) 부인 송 씨와 그 며느리 신 씨 등을 입교시켰다. 그러나 조선 정부의 수색망이 날로 좁혀지고 수많은 신자가 잇달아 순교하자 1801년 3월 자수하여 한강가 새남터(용상)에서 순교하였다.



쉬자후이 성당

徐家匯天主堂, 인연을 맺은 성당

주소: 上海市 徐家匯 蒲西路 158號

가는 방법: 지하철 1/9/11호선 쉬자후이[徐家匯]
역에서 도보 4분

좌표: 121.443184, 31.197666

쉬자후이[徐家] 성당은 한국의 2번째 신부인 최양업이 1849년 4월 신부 서품을 받은 곳이다. 진자샹 성당에서 김대건이 신부 서품을 받은 지 4년 만에 2번째 신부가 탄생한 것이다. 이로써 쉬자후이 성당은 진자샹 성당과 함께 한국과 깊은 인연을 갖게 되었다.

최양업 신부가 서품을 받았던 당시의 성당 건물은 1896년 철거되었고, 현재의 건물은 재건축된 건물이다. 20세기 초 아시아에서 가장 큰 성당이었던 쉬자후이 성당은 현재 중국 내에서 네 번째로 큰 성당이며 상해에서 가장 큰 성당이기도 하다.

중세 프랑스 형식으로 지어진 약 50m 높이의 고딕 양식 첨탑은 쉬자후이 성당의 매력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또 다른 특징은 성당 앞에 있는 작은 정원이다. 아주 잘 꾸며져 있는 이 정원은 동네 주민이나 쉬자후이 성당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좋은 쉼터가 되어주고 있다. 현재 쉬자후이 성당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시설 복원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다.



상하이고교, 화동고교

이 책은 중국 상하이에 남아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역사 유적지에 대한 내용을 엮은 자료집입니다. 상해한국학교에서 매년 주최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발자취를 찾아서>의 2021학년도 활동의 일부로 제작되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발자취를 찾아서 인솔팀(38명)의 자료조사를 토대로 박준용 학생이 직접 편집하였습니다. 이 자료집의 저작권은 상해한국학교에 있으므로 책 내용을 교육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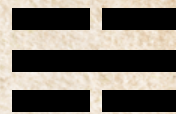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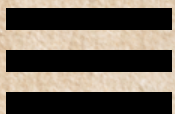
자료조사: 인솔팀 이도빈, 서수빈, 강민성, 최순영, 황정환, 김현지,

차민아, 신민서, 황수현, 김민주 외 28명(11학년, 상해한국학교)

집필책임: 전병석(교장, 상해한국학교)

원고집필: 박준용(12학년, 상해한국학교)

자문위원: 엄현미(교사, 상해한국학교), 조민영(교사, 상해한국학교)



대한민국 1만 세



상하이 교교, 화동 교교



상해한국학교

